

완도치유페이 오픈, 여행 경비 지원 받으세요!

완도 여행 관광객 온라인 사전 신청, 경비 최대 10만 원 지원

완도군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힐링하기 좋은 곳, 치유의 섬 완도'를 슬로건으로 '완도치유페이' 개별 관광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치유페이'는 관광객이 완도를 방문해 숙박, 식당, 카페 등에서 경비를 사용한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형 관광 인센티브 사업이다.

'완도치유페이'는 상반기는 2월부터 4월,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연 2회 운영하며, 비교적 관광객 방문 수가 적은 시기에 관광객 유입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완도치유페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

저 완도치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사전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후 개인 SNS에 후기를 업로드하고 현장 안내소(해변공원로84) 또는 완도치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경비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영수증(신청인 카드 1개 사용)을 제출하면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10만 원 이상은 3만 원(1개소 이상), 20만 원 이상은 6만 원(2개소 이상), 30만 원 이상은 9만 원(3개소 이상)을 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도서 지역(금일, 노화,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 여행 시에는 1만 원(단 증빙 영수증 총액 10만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할

다.

완도치유페이 쿠폰은 관내 숙박, 식당, 카페, 특산물, 체험장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완도치유페이 누리집과 현장 안내소는 2월 1일부터 운영하며, 가맹점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완도치유페이를 통해 관광-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경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는 2인 이상 참여였으나 올해부터 1인 이상으로 지원 조건을 확대하고, 현장 안내소 윈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절차 간소화, 가맹점 및 사용자 확대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완도치유페이를 신청한 팀은 15,477개로 43,335명이 참여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 기공식 개최

오산권역 관광 메카 도약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

구례군은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기공식을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오산권역 섬진강케이블카 하부정류장 부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에는 권항엽 국회의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오산 정상과 섬진강 일원을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구례군이 민간사업자인 ㈜다우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인 핵심 관광 프로젝트다.

구례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2022년 3월 구례군과 ㈜다우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24년 11월 전라남도로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를 완료했으며, 2025년 1월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지령도면 고

시를 마쳤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함에 따라 이번 기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길이는 2.34km, 약 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오산권역 일원에서는 구례 섬진강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약 2천억 원 규모의 민·관 협력 관광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구례군은 2025년까지 총 9개 사업에 722억 원을 투자해 섬진강 힐링생태공원 등 4개 사업(188억 원)을 이미 준공했으며, 섬진강 보도교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다. 군은 이를 통해 오산권역을 구례군 관광의 중심지이자 대표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 섬진강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구례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공식이 구례군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9일 무안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 로봇 분야 협력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무안군 관련 부서 공무원원을 비롯해 국내 로봇 분야 선도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 클로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무안군, 지능형 로봇 분야 협력사업 발굴 회의 개최

로봇 선도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클로봇과 협력 분야 논의

이번 회의는 무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농업 AX 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항공 ▲물류 ▲에너지 ▲식품 ▲제조 분야와 지능형 로봇을 연계한 사업화 모델과 실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무안의 대표 작목인 양파·마늘·고구마 등 노동집약적인 노지 농업과 산지유통센터(APC) 운영 과정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

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은 우수한 교통망과 농업 인프라를 갖춘 서남권의 요충지"라며 "국내 로봇 분야 선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AI·로봇이 융합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곡성군, '건강UP 행복UP!' 관계자 사업설명회

전남 곡성군은 지난 29일 보건의료원 건강마루 2층에서 초고령화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건강팔팔마를 '건강UP 행복UP!'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한 관계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팔팔마를 사업은 찾아가는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주민의 일상 공간에서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한 마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마을 대표자 11명, 건강지도자 25명, 담당 부서 직원 9명 등 총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사업의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역할 분담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곡성/이경수 기자



영광군,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및 참여자 교육

영광군은 지난 1월 29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강당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참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난 해 보다 50여명이 증가한 영광군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사 △노인일자리 선서문 낭독 △노인일자리 사업 소개 및 참여자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활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해 나갈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2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월 10회 경로당 급식과 청소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영광/이현석 기자



담양군,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실시

담양군은 29일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out!'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담양군,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점검·단속했다.

점검단은 학교 앞, 변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편의점 등 술·담배 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표시 업소에 판매금지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